

遭難救助隊 운영을 再檢討바란다

잘 안보이는 위험방지시설부터 먼저 수리해야 한다.

吳 判 龍

山岳등반事故가 빈발하는 겨울을 맞은 이때 국립공원 가운데 조난사고가 많았던 험준한 山岳型 국립공원부터 우선적으로 유급제 구조대원을 어떤 형태이건 채용하고 동시에 최소한 대피소 또는 山莊에는 반드시 유선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할 것을 제의한다.

현재 설악산·지리산을 비롯한 등반인구가 많은 명산은 거의가 험준하여 등반사고가 폭우기인 여름철과 폭설기인 겨울철에 많이 발생했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창설된 지난 87년 7월부터 89년까지의 조난사고 희생자 통계를 보면 2년반동안 사망자만 86명이나 된다.

87년 후반 6개월간 등반사 5, 익사 10, 부상 2, 88년도 등반사 9, 익사 14, 번사 18, 부상 13, 89년도 등반사 16, 익사 3, 번사 11, 부상 16(등반사 16명중 5명은 설악산)(註: 공단 보호과서는 번사는 자살·타살 불명사로 분류하고 익사는 해상공원의 해수욕장과 산악하천, 계곡서의 익사, 폭포추락은 추락사로 분류하고 낙석에 의한 사고는 낙반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낙반사는 공단 창설전인 87년 북한산서 1건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天災로 처리)

관리공단이 발족된후 원칙적으로 자연공원법의 미비점에서 온 제한된 수입금때문에 태부족한 예산에 따른 기구편성으로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청원경찰 인원까지 일반적으로 전환한 처지였고 외국처럼 고도의 조난구조기술을 가진 레인저(관리요원)를 채용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민간구조대」라는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의존하다 시피 되고있는 구조대 조직운영형태는 나쁘게 보면 구조대의 不在나 유명무실을 자초하고 걸치레

와 같은 存在라는 혹평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迅速하게 대처할 위치에 있는 山莊에 구조용 “들것” 하나 없고 영업하고 있는 민간구조대원들은 이름뿐이지 사고가 많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장사에만 열중할뿐 조난예방활동이나 구조신고에는 전혀 무관심할 뿐아니라 관리소와의 무선통신은 물론 수동전화시설마저 없고 구조대의 연락방법 안내판 하나 없어 속수무책이다. 다행히 일행이 있는 사람은 동료들에 업혀 下山하지만 동행자가 없는 경우는 어찌되겠는지 정말 한심한 일이다. 얼마전 일요일 大靑峰서 하산하다 발목을 다친 등반객이 가까스로 「희운각 산장」까지 와서 구조대연락을 애원했으나 「모두가 자기생업에 바쁘데 올 사람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는 대답이고 공원관리소와의 연락방법도 전혀 없다는 대답이었다. 1차적으로 관리공단에서 山莊의 관리방법을 쇄신해야 할 것 같다. 영업권을 부여할 때 경험있는 구조대원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 구조장비나 최소한의 통신시설은 공단이 마련해주되 구조대원은 인명구조의 의무를 완수토록 각서받아 위반시는 가차없이 계약해제 하는 일대 기강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일 비선대서 구조대원 합동훈련이 있었다하니 열성적인 구조대원체제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입장료에 의존해야 운영되는 현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유급 레인저를 요소에 배치하여 순찰토록 하는 조난구조제도가 빨리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인명경시의 관리는 최악의 관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전시행적적인 잘 보이는 위험방지 시설물보다 잘 안 보이는 오지의 위험방지시설의 수리 역시 우선 돼야 할 것이다. (筆者: 本會 事務局長)